

국별 리포트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7
V. 종합의견	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780천km ²	GDP	6,155억 달러(2009년도)
인구	74.82 백만명(2009년도)	1인당 GDP	8,227 달러(2009년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신터키리라 (Yeni Turkish Lira)
대외정책	친서방 및 친아랍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1.55(2009년도)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아우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7,482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터키는 2004년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 및 경제개혁 부진 등의 사유로 EU 가입은 아직 요원한 상황임.
- 최근 터키는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인접성 등 유망시장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post-BRICs군에 빠짐없이 언급되는 국가이고, 우리나라와는 2010년 4월부터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제성장률	6.9	4.7	0.7	-4.7	6.5
재정수지/GDP	-0.6	-1.6	-1.8	-5.5	-4.2
소비자물가상승률	10.5	8.8	10.4	6.3	8.7

자료: IMF.

□ 경제성장률은 2009년 -4.7%에서 2010년 6.5%로 전환 예상

- IMF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각종 경제개혁 과제의 착실한 이행으로 터키는 2004~07년 평균 7.4%대의 고성장세를 기록함.
- 2008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내수 및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3%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유럽 지역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FDI 유입 감소, 여신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7%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4분기부터 산업생산 증가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었고 2010년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하의 내수 증가, 여신 증대 및 고용 확대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연중 경제성장률이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생산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하였는데, 2010년 연중 산업생산증가율은 광공업은 6.0%(전년 -8.4%), 서비스업은 8.0%(전년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거시경제분야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2009년 및 2010년 수치로 비교하면, 민간소비 -2.2% 및

6.3%, 정부지출 7.8% 및 2.0%, 총고정자본투자 -19.1% 및 17.0%, 수출 -5.3% 및 7.0%, 수입 -14.3% 및 18.7% 등으로 나타남. 특히 201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10.3%에 달해 G20 국가 중 중국과 더불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7월 총선 이전 재정지출 억제를 위한 재정관리 주력

- 터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총선 및 지방선거를 통해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는데, 2007년에는 부가가치세율 인하(18→8%), 조기총선 관련 재정지출 등으로 GDP 대비 1.6%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지방선거 관련 재정지출 지속,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실업률 상승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5%로 크게 악화됨.
- 터키 정부는 2010년부터 휘발유, 담배, 주류 등 품목에 대한 간접세 비율을 높이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재정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7% 증가)을 재정수입 증가율(전년 대비 10% 증가)보다 낮게 책정하여 2010년 터키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011년 7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터키 정부는 재정수지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10년 10월에 편성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기금의 효율적 관리, 재정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목표치 설정

- 터키 경제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항상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으며, 두 자리수의 고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
- 2008년에는 식료품(음료), 에너지(원유, 전기) 및 교통비 등 공급 측면의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진정되지 않았음. 2009년에는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 및

국내외 수요 감소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7.5% 보다 낮은 6.3%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간접세율 인상 및 내수 회복 등으로 물가는 8.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통화당국은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5%(허용밴드 $\pm 2\%$ 포인트)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0년 6.5%, 2011년 5.5%의 소비자물가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장 금년에는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2. 경제 구조·정책

□ 경제 구조적 취약성 지속적 개선

- 터키는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및 금융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대표적인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됨.
- 터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대기성차관을 빈번히 지원받았는데, 2008년 5월 IMF 대기성차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IMF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신용도 평가 기관 등도 터키의 경제 체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특히 IMF 대기성차관 지원조건으로 추진한 경제개혁 추진성과가 다소 부진하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압박, 환율 불안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

□ 터키 정부는 당분간 IMF 대기성차관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10년 3월 9일, 터키 정부는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은 한 금년 7월 총선 이전에는 IMF 차관을 적극적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데 이어 3월 10일에는 IMF가 터키에 대한 대기성차관 추가지원 협상을 당분간 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함. 이 같은 배경에는 터키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되어 IMF 지원없이도 터키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한 데서 비롯됨.

- 터키는 2008년 5월 IMF 대기성차관(100억 달러)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IMF와 2~3년간 200억~2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추가지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원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어 왔음.
- 2010년 10월 터키 현지 조사출장으로 터키 재무부 및 재정부 등 정부당국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터키는 공적 외채 및 재정수지가 여타 경제위기 유럽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며 외채관리능력도 향상되면서 당장 IMF 차관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흥투자시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2008년 9월 1.24에서 12월 1.54, 2009년 3월 1.71 수준으로 일시 급등하는 등 리라화도 불안장세를 나타내었음.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리라화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2009년 9월 말 이후 달러 대비 1.48~1.57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달러 대비 연평균 리라화 환율: 1.550(2009) → 1.518(2010)

- 2010년 중에는 1.50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리라화가 강세(미달러화 약세기조 등의 영향)를 보여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하면서 통화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정학적 요충지, 풍부한 노동력 보유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 터키 인구는 2009년 기준 7,482만 명으로 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8,280만)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34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 전체의 61%로 노동력이 매우 풍부한 편임.

- 터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07년 222억 달러, 2008년 180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76억 달러로 위축되었으나, 2010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근로자의 숙련도, 교육 수준, 근로의욕 및 노동생산성 등 터키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평가도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중기개발프로그램(MTP) 운용

- 터키 정부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개발프로그램(MTP)을 매년 수정하여 발표하는 등 향후 3년간 취하게 될 구체적인 경제 재정조치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1~13년 중기경제프로그램(MTP)에서는 재정관리, 사회조장기금의 효율적 관리,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억제, 수력 및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에너지 수입구조에 대한 해결책 등이 반영됨.
- 터키가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급증하였고 2007~13년 제9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G20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을 통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형 수출드라이브 산업정책을 지향하였음. 수출지향 전략을 심화, 발전시기키 위해 1980년대에는 무역자유화와 수출촉진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조치를 취하였음.

-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였음. 2003년에도 수입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 규정과 합치하는 수입제도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음.
- 터키는 EU 가입을 위해 1996년 1월,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입제도를 전반적으로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함. 수출지향의 투자 증대,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1985년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한 이후 총 21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2001년 금융부문 개혁,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2007년 법인세 감면,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장 프리미엄 지원 보장, 이자 보전, 토지사용 무상지원, 2009년 포괄적 인센티브 부여 등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함.

□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0% 포인트 인하하여 현재 7% 수준 유지**

- 터키 중앙은행은 리라화 가치하락 및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006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를 17.5% 수준에서 유지하여 왔으며, 2008년 10월까지 16.75%의 금리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후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차입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역대 최저인 7% 수준으로 인하하여 유지함. 그러나 터키 중앙은행이 2010년 4월과 9월에 출구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가 단기간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005년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 등 경제구조개혁 추진**

- IMF는 2005년의 터키 경제위기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민영화를 터키 정부에 강력 권고하였으나 터키 정부는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영화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었으나, 2005년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민영화 기업으로는 프랑스 Alcatel에 지분 40%를 매각한 Teletas(전력업체), 이탈리아 Fiat에 지분 17%를 매각한 Tofas(자동차업체), 러시아 Tatneft 자회사인 Efremov Kautschuk에 지분 66%를 매각한 Tupras(정유업체), 네덜란드 ING Bank에 매각된 Oyak Bank, Socar-Turkcas-Injaz 컨소시엄에 지분 51%를 매각한 Petkim, Oger Telekom에 지분 55%를 매각한 Turk Telekom 등임.
- 2002년부터 집권한 터키 현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면서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재정수지 적자 축소, 조세분야 등에 대한 추가 개혁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터키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추세임.
- 조세 및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이 2011년 총선 이전에는 실행될 가능성이 적으나, 시장여건이 허용된다면 에너지 및 금융부문을 포함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상 수 지	-32,197	-38,311	-41,946	-13,943	-38,816
경 상 수 지 / GDP	-6.06	-5.92	-5.74	-2.27	-5.40
상 품 수 지	-41,059	-46,795	-53,021	-24,876	-48,912
수 출	93,610	115,361	140,800	109,635	117,431
수 입	134,669	162,156	193,821	134,511	166,343
외 환 보 유 액	60,710	73,156	70,231	69,178	73,903
총 외 채 잔 액	206,833	249,181	277,277	275,613	270,727
총 외 채 잔액 / GDP	39.0	38.5	38.0	44.8	37.9
D S R	32.5	31.7	29.8	39.9	26.2

자료: IMF.

□ 경상수지 적자의 변동성 확대

- 터키 경상수지는 상품수출에 비해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지속되었으며, 2008년에도 리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외국인투자 관련 배당금 지급 등으로 GDP 대비 5.7%를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주요 무역상대국 (EU, 러시아 등)과의 교역규모가 위축되어 수출입실적도 급감하였음. 상품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생산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감소, 외국인투자 송금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139억 달러로 2003년 이후 6년만에 최저치)는 GDP 대비 2.3%로 오히려 개선되었음.
- 2010년에는 총수출증가율이 전년의 -19.0% 수준에서 9.3%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리라화 강세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5.4% 수준으로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 유지

- 터키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702억 달러, 2009년 말 692억 달러에서 2010년 8월 말 748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4.5개월 수준으로 전망되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06~08년 연평균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76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터키는 경상수지 적자를 FDI 유입 등을 통한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하고 있음. 터키 정부는 2010년 1월 20억 달러의 정부채권(30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기준 225bp), 3월 10억 달러의 정부채권(11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기준 203bp)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외채구조는 종전 평가에 비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상황

- 2009년 총외채잔액은 해외차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2,756억 달러)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은 2009년 말 기준 44.8%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2010년 말에 는 37.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공적채무(국내외 포함)는 2008년 말 2,515억 달러(GDP 대비 40%), 2009년 말 2,931억 달러(46%)를 기록하였음. 다만, IMF 차관 상환 등으로 외채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터키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누증, 국영기업 자산매각 부진 등으로 국내채무 비중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008년 29.8%, 2009년의 39.9%, 2010년 26.2%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DSR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0년 9월 개헌안 가결로 집권여당의 입지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은 과거 복지당(Welfare Party)에서 활동하였던 자유우익 노선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에 의해 2001년 8월에 창당되었으며, 2002년 11월 조기총선에서 34%의 득표로 550석 재적의원 중 363석을 차지하면서 집권함. AKP는 2007년 7월 총선, 2009년 3월 지방선거에도 승리를 거두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슬람정책을 고집하지 않고 친서구화(EU) 정책을 추진함.

- 집권여당(AKP)은 판검사 최고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확대, 정당 해산 요건 및 절차 강화, 1980년 9월 쿠데타 재판 금지조항 삭제 등 현행(1982) 헌법의 26개 분야를 개정하기로 2010년 3월 발표함. 2010년 5월 의회 표결에서 개헌안 승인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개헌안의 국민투표 부의는 가결되었고 대통령도 동 개헌안에 서명함. 2010년 9월에 실시된 국민투표(투표율 77%)에서 동 개헌안이 찬성 58%, 반대 42%로 통과되어 사법부와 군부의 권한이 약화된 반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은 강화될 것으로 분석됨.
- 공화당(강경 민족주의), 국민행동당(우파) 등의 야당과 사법부 및 군부 세력은 동 개헌안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음.

□ 차기총선(2011년 7월) 이전 여야간 갈등증폭 예상

- 2007년 7월 22일 조기총선에서 AKP는 47%의 득표율로 전체 550석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340석을 차지하여 재집권에 성공함. 터키의 국가원수는 대통령(7년 단임)이지만,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정권을 주도하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하고 있음. 현재 Abdullah Gul 대통령은 2007년 8월 의회에서 선출되었고, 에르도안 총리(4년 임기, 연임 가능)가 국정을 장악하고 있음.
- 2009년 3월 29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AKP는 3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하였으나 2004년 지방선거에서의 42%, 2007년 총선에서의 47%와 비교시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였음. 반면, 야당인 공화당(CHP)과 국민행동당(MHP)은 각각 23%, 16%의 득표율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하였음.
- 2009년 지방선거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총리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공식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으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나, 2011년 7월 차기 총선

이전 개헌안의 국민투표 실시, 쿠데타 혐의 관련 군간부 기소 등에 따른 휴유증으로 여야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말 이후 야당 및 군부와 집권여당과의 갈등 심화

- 2009년 말 군부 및 검찰간부 등의 쿠데타 기도 혐의로 2010년 2월에 전현직 군간부를 포함한 50여명이 체포되면서 친 이슬람계인 집권여당(AKP)과 검찰 및 군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군부, 검찰 등의 쿠데타 시도는 집권여당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헌(집권여당의 정부기관 통제 강화 등) 추진으로 터키를 친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에 반발한 것으로서 2008년 초 AKP의 해산(동년 7월 부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집권여당의 보복 조치로 분석됨.
- 현 정부 전복의 의도를 가진 민족주의자(Ergenekon)*와 집권여당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터키 정치안정성이 다소 우려되며, 2011년 7월에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가 주요 정치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 퇴역 장성, 군소 정당 당수, 언론인, 변호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극우파 네트워크로서 2008년부터 150여명이 2003년 AKP 정부 출범 저지, 2009년 말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사회적 안정도는 비교적 양호

- 국민의 99%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1923년 아타트르크 정부 수립 이후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속하고 있어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세력간 분쟁은 별로 없음. 국민성은 성격은 급하나 근면하고 소박한 편임.

- 실업률: 14.1%(2009.12) → 10.6%(2010.6) → 9.9%(2010.10)

- 회교 과격단체가 활동하고 있지 않고, 쿠르드족 분리독립 관련 군부간 무력충돌도 동북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앙카라를 기준으로 서부지역에 주로 진출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특히 이스탄불의 경우 동서양의 문화가 접목되는 국제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연간 2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쿠르드족 분리독립 요구에 따른 무력충돌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

- 2005년 2월, 이라크총선에서 쿠르드족이 27%를 득표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쿠르드족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분리(1,200만명, 인구의 18% 수준)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왔음.
 - 2006년 9월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의 폭탄 테러, 2007년 9월 Sirnak 지방에서의 터키 정부와 쿠르드족간의 무력충돌, 2007년 12월 터키 무장군인의 쿠르드족 반군기지 공습, 2008년 2월 터키 지상군의 이라크 지역 침입 등의 충돌사태가 발행하였으며,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반군, 이라크 등과의 평화적인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 특히, 터키의 쿠르드족 반군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등이 EU 가입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왔음. 2009년 7월 베시르 아탈레이(Besir Atalay) 내무장관은 쿠르드족 문제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책 도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동년 8월 에르도안 총리는 쿠르드민주사회당(DTP) 총재 아멧 투르크(Ahmet Turk)와의 이례적인 회동을 통해 쿠르드족과 관련된 최근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바 있음.
- 2009년 12월 터키 헌법재판소가 쿠르드노동자당(PKK)* 반군 연계 혐의로 DTP에 대한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터키 전역에서 폭력시

위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로 잠재하고 있음. 2010년 들어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족 반군간 지난 14개월간의 휴전을 종료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터키군이 80여명이나 사망하는 등 산발적 교전이 벌어지고 있음.

* 북부이라크 소재 반란그룹으로 지난 26년간 쿠르드족 자치 투쟁 지속

3. 국제관계

□ 친서방, 친아랍의 균형외교 지향 (실용적 중도노선)

- 이슬람 국가중 유일한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서방 및 중동 국가들과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며 친서방, 친아랍 균형외교를 지향함.
-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1947년 3월 터키가 트루만 독트린을 지지함으로써 본격화되어 1980년 미국과 국방경제협력협정(DECA)을 체결한 이후 1991년 진보된 협력관계를 거쳐 1999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함.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터키를 활용하여 중동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2010년 3월, 미하원이 1915~18년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사건을 인종살상(genocide)으로 규정하면서 양국간 외교관계는 일시 악화됨.
-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천연가스 및 석유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동(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및 러시아와 구소연방 국가와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2010년 5월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자지구행 국제구호선을 공격하여 터키인 승선자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미국 및 NATO의 미사일방어체계(MD) 터키내 배치문제로 터키 정부는 이란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함에 따라 동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사이프러스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

- 전통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와도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는 그리스와의 관계 정상화에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음. 사이프러스 문제해결을 위한 터키계 및 그리스계 주민간 협상은 물론 UN 등 국제사회의 중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통합에 관한 양측의 합의도출에는 실패함.
- 2004년 5월 남부사이프러스가 단독으로 EU에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는 남부사이프러스를 정식국가로 승인함.

□ EU 가입협상은 정체국면

- 199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에 가입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정치 경제적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으로 2004년 12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함.
- 터키는 사형제도, 국가안보법 및 군부의 의원선출권 폐지 등의 인권관련 법안 통과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EU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으나, 2006년 12월 터키의 사이프러스발 선박 및 항공기 입항 금지를 주된 이유로 EU 가입협상 항목 중 상품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 등과 관련된 8개 조항(총 35개 조항)에 대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EU는 터키 인권 부문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나, 언론·종교의 자유, 여권, 소수민족 및 노동자 권리,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 부문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터키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가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터키의 EU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의

지를 표출하고 있고 국민의 EU 가입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어 향후 EU 가입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12월까지 터키의 사이프러스에 대한 항공 및 공항 사용권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차기연도에도 8개 조항의 EU 가입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2009년 10월 발표함. 현재 터키의 EU 가입에 대해 영국, 스페인, 스웨덴 및 이탈리아 등은 지지하고 있지만,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독일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가스관 건설 관련, 터키는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

- 나부코(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이며,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참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유럽과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가즈프롬)와 이탈리아(Eni)는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불가리아를 기점으로 그리스-이탈리아 연결 사업과 세르비아-헝가리-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이탈리아 연결 사업)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유럽시장을 더 확고히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터키는 나부코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나, 유럽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이 자국의 영해인 흑해를 통과하는 것을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합의(2009년 8월)함에 따라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을 모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2009년 이후에는 유럽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국가가 되려는 터키의 구상과 터키를 경유하여 유럽에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맞아 떨어지면서 양국간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음.

VI.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10.11)	C2 (2010.3)
OECD	4등급 (2010.1)	4등급 (2009.1)
S&P	BB (2010.8)	BB (2010.2)
Moody's	Ba2 (2010.10)	Ba2 (2010.1)
Fitch	BB+ (2010.10)	BB+ (2009.12)
I.C.R.G	100/140 (2010.1)	105/140 (2009.9)
Euromoney	59/186 (2010.3)	67/186 (2009.9)
I.I.	67/178 (2009.9)	70/177 (2008.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최고 부보율 적용
-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당분간 IMF 대기성차관의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터키는 1979년 및 1982년 외채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잦은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며 1984~2005년간 IMF로부터 총 520억 달러(승인기준) 규모의 국제금융을 지원 받았음. 2010년 3월 기준으로 터키의 IMF 대기성차관 잔액(상환부담분)이 80억 달러 상당이고, 따라서 터키 정부는 IMF의 사후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상태임.

- 2008년 5월 IMF 대기성차관의 지원기간(최종 3년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재정 및 유동성 관리, 외채관리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 및 외환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형성됨. 따라서 터키 정부는 당분간 IMF 대기성차관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CRAM(Country Risk Assesment Model)의 ECA 거래실적에 대한 모델등급은 0등급으로서 최상위 수준임.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우리나라의 대 터키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4,087,436	3,772,570	2,660,688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수 입	281,570	361,913	434,435	광물성 연료, 섬유제품, 농산물

□ 2008년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가 지속되어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하였는데, 2007~09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 43.7억 달러(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 40.9억 달러), 2008년 41.4억 달러(수출 37.7억 달러), 2009년 31.0억 달러(수출 26.6억 달러)로 감소함.

- 2007~09년 중 터키는 우리나라의 25대 수출국(2007)에서 32대 수출국(2009)으로 하락하였고, 우리나라의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축소되어 동 기간 중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폭이 2007년 38.1억 달러에서 2009년 22.3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무역불균형 현상은 지속됨.

□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8~09년 소강국면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는 2007년 연중 1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 6,930만 달러(전년 대비 38.6% 감소), 2009년 6,238만 달러(전년 대비 10.0%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대 터키 직접투자(투자금액 누계기준)는 2010년 6월 말 4.6억 달러 수준임.

□ 한-터키 FTA는 2010년 3차 협상 추진 중

- 한-EU FTA가 2010년 10월에 체결(공식 서명)되어 2011년 7월 이후 잠정 발효될 예정이어서 EU와 관세동맹(1995년 12월 체결, 1996년 1월 발효)을 체결한 터키와의 FTA 체결을 위한 양자간 협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
- 터키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대다수가 상품 분야이고 우리나라도 상품 분야에서의 체결을 우선 목표로 하여 2010년 4월부터 양국간 1차 협상(앙카라)을 시작으로 7월(서울) 2차 협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3차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V. 종합의견

-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2009년 1분기에는 1945년 이후 최저치인 전년동기 대비 -1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었음. 그러나 동년 4분기부터 경제가 호전되면서 2010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6.5%)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량평점의 상승은 경제성장률 및 총수출증가율의 상승 반전에 따른 데 기인함.
-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하였던 대표적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터키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시행 등으로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되며,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중기경제계획을 시의 적절히 추진하고 있음. 특히 경제펀더멘털 및 구조적 취약성 개선, 재정 및 외채 관리능력 향상,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터키는 당분간 IMF로부터 대기성차관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국제적인 신용도평가 기관들도 터키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009년 말 이후 상향조정하는 등 터키의 국제신인도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음.
- 다만, 정치사회적으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터키 정부는 2015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이프러스 문제 등으로 EU 가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09년 말 이후에는 집권여당과 군부 등 민족주의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개헌안의 국민투표 실시 등으로 2011년 7월 총선 이전에는 정치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부실장 조 양 현(☎02-3779-6663)

E-mail : yhjo@koreaexim.go.kr